여울교인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전쟁과 폭력으로 얼룩진 이 땅에 평화를, 죽임과 차별에 생명을, 독선과 경쟁에 나눔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신앙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교 역사는 사랑의 역사!

인류 역사는 인간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역사에 맞서 예수는 사랑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는 유대 사회가 율법을 이유로 차별하고 배제한 사회적 소수자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로마제국의 주변부에서 소수자로 살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갈라디아서 3:28)"

이미 온 예수를 삶의 주체로 받아들인 개인의 입장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는 교회의 입장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우리는 지역, 성별, 장애, 나이, 종교, 사상, 재산,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차별에 아픔과 함께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에 앞장서야 할 교회가 차별금지와 그 연대를 반대하는 현실에 부끄러움과 분노를 느낍니다. 예수를 따르고 실천하고자 하는 우리는 성적 지향을 비롯한 어떠한 이유에서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차별을 반대합니다. 우리는 성소수자를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이웃으로 존중하며 그들을 향해 닫았던 우리의 가슴을 엽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연대를 위한 이 과정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고자 합니다.

교회 일부 지도자들의 목소리에 반대하는 일반 교인들의 목소리

오늘날 성소수자 인식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개신교 내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수렴하는 과정 없이 성명서를 발표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과거 기독교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취사선택하여 만든 교리로 노예제와 여성차별을 지지했던 잘못된 역사를 성찰하는 가운데, 교리와 신앙이 혐오와 차별의 근거가 되는 비극이 또다시 되풀이되는 상황을 목도하게 되어 애통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정부나 정당은 아직도 신자대중보다 교단장들의 성명서 한 장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 '사회적 논란' 등의 이유로 더 이상 미적거릴 때가 아닙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시대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종교인 기독교를 차별과 혐오의 종교로 만드는 종교지도자의 어떠한 행위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차별과 혐오가 아닌 환대와 사랑의 길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여울교회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견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첫째,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적극 지지합니다. 21대 국회의원들 뒤에는 차별금지사유 전체를 동의하고 지지하고 있는 수많은 시민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포괄적 평등법 제정을 위한 담대한 한 걸음을 우리와 함께 내딛으십시오.
둘째, 차별금지법/평등법 반대의 명분으로 기독교를 악용하는 정치인들을 반대합니다.
셋째, 일부 기독교 권력자들의 성소수자 차별을 반대합니다.
넷째, 우리는 성소수자에 대한 포용과 이해를 우리 시대 모두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실천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지체들과 연대하여 차별 없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평화 생명 나눔의 공동체 여울교회 그리스도인들